



슬기로운 문화생활... 온라인 공연 다시보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의 휴관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등은 기존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던 공연의 다시보기를 제공한다. 또 이미 무대에 올랐던 공연의 실황 영상을 공개하는 등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공연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유튜브 '각(GAC) 나오는 TV'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안방예술극장', '온라인으로 보는 국악상설공연', '안방예술극장 다시 보고싶은 공연' 등 지극히 무대에 올려왔던 공연들을 세계 카테고리 나누어 업로드한 상태다.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안방예술극장' 코너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과 함께 집에서 발레를 배워보는 '비타민 발레' 시리즈, 광주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현악 앙상블,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 콘서트 #1' 등을 다시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보는 국악상설공연'에서는 최근 열린 국악상설공연 12편을 차례로 만날 수 있으며 '안방예술극장 다시 보고싶은 공연'은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을 비롯해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하이라이트,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등이 업로드 돼 있다.

국립극장은 인기 프로젝트인 '2020 여우락 페스티벌' (이하 '여우락') 공연을 국립극장 네이버TV·유튜브를 통해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 다.

11일 오후 4시에 펼쳐질 '들썩들썩 수궁가'는 유튜브에서 190만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 '범 내려온다'의 주인공, 밴드 이남치가 꾸민다. 지난 5월 발매한 정규 1집 '수궁가' 수록곡 전곡을 공연한다. 12일 오후 4시 공개되는 '용/용'에서는 림 킵이 정 의하는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가야금 트리오 '헤이스타링'도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무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현재 '서울시향 퇴근길 토크 콘서트: 신화, 음악의 날개를 달다', '힘내자! 대한민국의 콘서트 서울시향 고금음악회', '오스모 밴스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문화예술회관, '안방예술극장' 등 업로드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네이버TV 생중계

서울시향·세종문화회관 등도 공연실황 공개



포르테 디 콰르토



김다미

문지영

케와 함께하는 서울시향 온라인 콘서트' 등 1시간 안팎의 공연 영상을 만날 수 있으며 생방송 '수족관',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그리고 '페르 콩트 모음곡' 등의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민 곁으로 찾아가 선보이는 '공연 LIVE 생중계-힘내라 콘서트'는 네이버 TV에서 볼 수 있다. '2020 세종체임버시리즈', '포르테 디 콰르토 Only for you', '아도이 VIVID', 'DTSQ 콘서트 하이라이트', '김보라의 소리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발리 카터 콘서트 하이라이트', '김다미-문지영 듀오 브라스

전국 연주회' 영상 등이 올라와 있다. 또 연극 '흑백다방', 무용 '늦-N.O.T.', '허풍선이 과학쇼', '오페라 토크-로시니'도 만날 수 있다.

롯데콘서트홀은 지난 6월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만나는 'MUSIC KEEPS GOING'을 진행, 현재 '스페셜 트리오', '조재혁과 친구들: 이명주 & 서형민', '강효지 & MAG', '양상블태리' 등 네 팀의 공연 녹화 영상을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 중이다.

피아니스트 조재혁,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트리오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선보였고, 피아니스트 조재혁-이명주-서형민은 쇼팽의 '발라드'를 비롯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라보엠', '나비 부인' 등의 아리아 명곡을 연주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 Ce n'est pas moi'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 피아니스트 강효지와 안무가 정재우의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박미혜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앙상블 태리는 1부 '봄&꿈', 2부 '사랑&희망'에서 한국가곡을 포함한 희망을 노래하는 오페라속 아리아와 뮤지컬 곡들을 들려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극장 여름영화

'해변의 폴린' '여름 이야기' 상영

여름의 해변, 밀려들고 사라지는 파도같은 젊음과 자유로움을 만날 수 있는 영화가 관객들과 만난다.

광주극장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에릭 로메르 감독의 여름 배경 작품 '해변의 폴린' (1983)과 '여름 이야기(사진)' (1996)를 각 2회씩 상영한다.

에릭 로메르는 특유의 감성으로 아름다운 자연에 인간 삶의 속명과 우연을 녹여내 찬사를 받아온 명감독이다.

그의 '희곡과 격언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해변의 폴린'은 사랑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마리온과 사촌 동생 폴린이 해변가로 여름 휴가를 떠나며 일어난 일을 담았다. 낭만적인 제목과는 달리, 주인공들을 시련에 빠뜨리는 설정들이 영화 내내 이어지며 1983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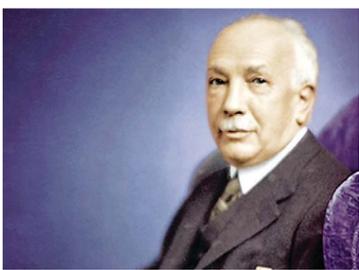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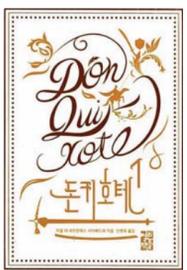
'여름 이야기'는 사계절 연작의 세 번째 작품으로 여름날 홀로 해변 여행을 떠난 가스파르가 세 여자 애정문제로 얽히며 발생한 사건들을 그려다. 아만다 랑글레의 성숙한 모습과 멜빌 푸포의 따뜻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에릭 로메르 감독만이 지닌 섬세한 연출력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돈키호테'를 듣다

오충근 예술감독 '새말새물짓' 홈페이지 통해 음악 소개·설명

'돈키호테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광주일보사는 (사) 새말새물짓과 함께 진행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네가기' 7월 함께 읽을 책으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선정했다.



(사) 새말새물짓은 홈페이지(www.nwna.or.kr)를 통해 음악으로 듣는 '돈키호테'를 소개, 책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유명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키호테'로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 콘서트 '노자와 베토벤'을 3년째 개최하고 있는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 길라잡이로 나섰다.
오감독은 앞으로 선정된 책과 관련한 음악을 소개하고 설명을 곁들일 예정이다. 또 음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다.
오 감독은 연주 유튜브 영상(www.youtube.com/watch?v=_6P1WHXKalk&feature=youtu.be)과 함께 슈트라우스는 어떤 방법으로 소설을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돈키호테-산초판사-돌시네아 공주 등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슈트라우스는 이 곡안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음악을 듣기를 권했다.
'기적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주제에 의한, 대관협약을 위한 환상적 변주곡'이 원제목인 교향시 '돈키호테'는 40분 분량의 변주곡 형식의 단악장으로 솔로 첼로가 협연하는 듯한 협주곡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com/watch?v=_6P1WHXKalk&feature=youtu.be)과 함께 슈트라우스는 어떤 방법으로 소설을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돈키호테-산초판사-돌시네아 공주 등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슈트라우스는 이 곡안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음악을 듣기를 권했다.
'기적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주제에 의한, 대관협약을 위한 환상적 변주곡'이 원제목인 교향시 '돈키호테'는 40분 분량의 변주곡 형식의 단악장으로 솔로 첼로가 협연하는 듯한 협주곡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현판·비문 무슨 뜻일까?

문화재청, 건조물문화재 기록물 내용 12월까지 DB 구축

옛 건물에 부착된 현판이나 비문 내용이 알기 쉽게 풀이돼 DB로 구축된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주로 건축물) 기록물 등을 12월까지 목록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622건에 부속된 기록물 1485개와 관련 기록물 4만579개를 전수조사해 수집을 완료했다.
부속기록물은 문화재에 부착돼 있거나 새겨져 있는 현판, 주련(柱聯) 그림이나 글귀를 새겨 기둥에 걸어 두는 물건, 비문 등의 기록물을 지정한다. 관련기록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고문헌, 사진, 도면, 수리기록, 논문 등의 기록물을 의미한다. 특히 부속기록물에는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 행적, 종교적 의미 등이 담겨 있어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지난 조사과정에서 부속기록물 하나인 주련의 누락, 부착 순서의 오류 7건을 확인했으며 현판과 주련의 색상·문양·보존상태 등도 확인해 목록화했다. 현판 테두리 문양은 화문(花紋·꽃무늬)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당초문(唐草紋·식물 덩굴무늬), 칠보문(七寶紋), 금문(錦紋) 순으로 많았다. 현판과 주련 모두 바탕색과 글자색은



흑색바탕에 백색글자(611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재수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한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기록물은 12월 목록화 완료 이후 누리집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상반기 이용 실적 전국 1위

전남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6월말 전남은 사업예산 77억 4819만원 가운데 52.7%인 36억 6205만원을 사용했다.
재단은 고려층이 많은 지역 특성과 섬, 농어촌 등 열악한 여건을 극복해 상반기 100여개소의 신규 가맹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사군의 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재단은 하반기에도 이용실적 확대를 위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카드 가맹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업종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9만원을 지원하며, 카드 사용처는 ▲(문화)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여행)숙박, 철도, 국내항공, 고속버스, 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등 ▲(체육)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이다. 전남의 경우 도서 구입, 주요 관광지 입장권 구매, 영화관 이용 등의 순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률이 가장 높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